

박여범의 소소한 일상

깊은 잠에 빠진 너?

‘떡 고 살기’ 위해서 우리는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그 관계 속에서 사랑도, 명예도, 돈도, 미래도 설정하고 바라보며 달려가고 있다. 그런데 이런 일반적인 삶의 모습에서 약간 삐딱하게 살아가는 부류가 있다. ‘까짓 것, 떡고사는 게 대수냐?’,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진정한 가치를 찾아갈 거야?’ 라는 막가파식의 미래를 향해 달려가는 답이 없는 소수의 무리도 있다.

내가 하고 싶지 않을 일을 하지 않는다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 대답은 간단하다. 개인적인 일들을 진행하지 않는다면 금전적인 손해나 인간관계의 단절 등 다양한 피해를 볼 것이다. 직장에서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하지 않는다면, 직장을 잃는 것이 당연한 결과물일 것이다.

이들이 믿는 것은 단 하나일 것이다. 자신들의 신념을 바탕으로 게으르지 않고 성실하게 살아간다는 상식적인 삶을 주장한다. 그러면서 자신들이 믿는 인물에 대하여 집착과 지나친 관심으로 '세상의 중심이 될 거야' 라는 자극히 소모적인 자신감 때문일지 모른다. 왜냐하면, 우리는 '무엇 무엇이 될 거야?' 라는 거대한 꿈들은 대부분 '꿈'에 그치는 경우가 대다수다. 그런데 어느 날 뜬금없이 잘 나가던 직장을 버리고 모든 해야 할 일들, 책임감, 의지함을 잠깐 내려놓고 살아간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많은 시간, 우리의 삶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친구 '코로나 19'가 있다. 이 반갑지 않은 바이러스는 시간이 지나면 자날수록 불신의 벽만 높이 쌓는 데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종교



박 여 범

용복중학교 교감 · 시인 · 문학박사

단체가 중심에 있다. '신천지'라 통칭 되는 그들은 지금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 그것은 개인적인 이익보다 사회전반을 생각해야 하고 '나'와 '너'를 서로 보호해 주어야 하는 일이다.

어지러운 세상에 당당하게 허리를 세우고 세상이 마치 제 것이 아닌 자연스런 계도 초대장도 없이 뜬금없는 너는, 입안 가득 비밀거품 허벌나게 물고 은근슬쩍 다가온 너

공포와 불인의 마스크 전정에 줄을 서더니 황망하게 확연히 불에 시너를 찌고리고 학생방 훈련보다 더 희귀한 바이러스 스포티를 아니 새로운 세상에 도대체 너는? - 코로나 19

너도나도 반갑다는 두려운 외침에 새로운 세계를 향한 해녀의 힘없는 자막질은 비구니 하나 가득 한숨으로 가득하

고 티버린 영혼 거리두기에 붉게 웃으며 두 번 절하니

천국 문은 이미 열려 있고 세상은 너희 것이니 어화둥둥, 탕탕탱 탕탕 째깍 허풍 위세에 코로나 부대의 검디검은 폐를 부여잡고 팩트에 팩트를 외치며 깊은 잠에 빠진 너를 만나러 간다 -시인 박여범 '깊은 잠에 빠진 너'

위의 시처럼, /어지러운 세상에 당당하게 허리를 세우고 세상이 마치 제 것이 아닌 자연스런계도/초대장도 없이 뜬금없는 너는, 입안 가득/비밀거품 허벌나게 물고 은근슬쩍 다가온 너는 진정 해야 할 일을 잘 감당하고 있는 것일까?

이런저런 질문에 대한 답은 이미 명료하다. 그것은 바로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비협조적이며' 숨기에 급급하다는 것이다. 나에게 묻고 싶다. '무엇이 그리 두려운가?' 이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코로나 19와 일부 종교집단에 던질 수 있는 질문이다.

주일 오후, 아내와 주변 공원으로 산책을 나섰다. 깜박하고 마스크 착용을 놓쳤다. 산책로는 이미 가족단위로 삼삼오오 만원이었다. 자전거 도로는 아이와 어른 할 것 없이 뒤엉켜 움직이고 '우리 동네에 이렇게 사람이 많았어?' 라고 놀랄 만큼 많은 사람을 만날 수 있었다. 한참을 걸다 보니, 웬지 부끄럽고 죄지는 느낌에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다.

그 많은 인파 중에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사람은 손에 꼽을 정도였다. 모두 마스크를 착용하고 상대방에게 바이러스를 전파하지 않기 위해 '해야 할 권리'를 충실하게 실천하고 있었다. 그렇다면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을 권리'에 충실한 것인가? 산책하는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바라볼까?' 라는 곳까지 생각이 미치지 좌안처럼 부끄러웠다.

이처럼, 사소한 실수로 인한 일상의 삶은 어떤 상황에서 누구나 경험할 수 있다. 산책과 마스크 부재가 가져다준 사회적 의무는 아주 사소한 것 같지만, '해야 하는 정당한 의무'이기 때문이다. 사소하지만 쉽게 행동해서는 안 되는 일이 바로 '팩트'다. 이 '팩트'는 이기적인 소수에게 던지는 질문의 핵심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처럼, '팩트'를 구별할 줄 아는 매서운 눈과 생각이 필요하다. 자기반성을 통한 '팩트'를 알리고 실천하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을 권리'와는 상반된다. 그래서 항상 문제는 '팩트'다. 감정이 개입되지 않은 '팩트'가 진정한 '팩트'다. 그러나 어느 것이 '팩트'이고 어느 것이 가짜인지를 구별하기 쉽지 않다.

사진으로 보는 지구촌 소식

접근금지



11일(현지시간) 미 캘리포니아주 새크라멘토 의사당 내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주지사 집무실 앞의 곰 조각상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접근 및 접촉이 차단돼 있다.

독자제언

비보호좌회전,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비보호 좌회전'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거나 잘못 알고 적색신호에 좌회전해도 된다고 알고 있는 시민들이 꽤 많다. 비보호 좌회전은 적색이 아닌 녹색 신호일 때 허용되지만 그렇다고 녹색신호에는 마음대로 좌회전해도 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비보호 좌회전 표시가 있다면 녹색 직진 신호에 좌회전을 허락해주지만, 반면 사고가 났을 때 직진 차량보다 우선으로 보호해주지 않는다.

맞은편에 차량이 오고 있는지 잘 살펴본 후에 반대편 차량이 없을 때 좌회전 해야 한다. 이전에는 비보호 좌

회전에서 반대편 차량과 사고가 나면 신호위반의 책임을 물어 좌회전 차량에게 불리했는데, 지금은 이 부분이 개선되어 쌍방 과실 여부를 살펴보고 반대편 차량의 과속 등의 문제를 확인하고 여러 부분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처리하고 있다.

적색 신호 시에 좌회전 하는 경우, 신호 위반에 해당해 벌점 15점과 6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니 모든 운전자들은 비보호 좌회전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알고 운전하여 사고를 줄이는 동시에 도로교통법을 준수해야 한다.

신해지 남원경찰서 교통관리계 승경

사설

도내 영세 기업들에 관심을

전북도가 영세 기업들에 보다 깊은 관심을 가져야겠다.

그동안 기업들에게서 밝은 소식이 드물었기에 하는 말이다. 전북도가 앞으로 어떤 지원을 보여줄지 도민들은 지켜보고 있다. 영세기업도 잘 나가야 지역경제가 나아지고 젊은이들을 위한 일자리도 창출될 것이기 때문이다.

전북도는 현장의 애로 사항을 청취하고 다각도로 지원하겠다고 했으므로 반드시 실행행보를 보여야 한다.

우선 도내 기업들의 생존률이 어떤지 파악해야겠다.

지난 십 수년 간 전국 최하위라는 보고가 계속됐는데 긍정적으로 변화된 모습을 아직도 볼 수가 없다.

군산 경제가 지난 수년 간 몰락상태로 있는 것을 생각하면 가슴이 답답하다. 새삼스럽게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전북도가 중심을 잡고 일을 해줘야 하기 때문이다.

지역의 급한 현안에 우선적인 관심을 두어야 한다는 당부는 저번 예도 했던 바이다.

전북도는 지역의 영세 기업들에 관심을 주지 않으면 안된다. 그리고 중소기업들 쪽에서도 밝은 소식이 전혀 들리지 않고 있는 요즘이다.

그동안 중소 영세기업들을 살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지만 별로 달라진 게 없다. 전북도는 지역 경제의 흐름이 어려울수록 기업들의 행편을 살펴야 한다. 늘 그랬거니와 돈이 들지 않는 전북 경제는 정체된 상태이다.

전북도는 지원으로 기업 생존률을 끌어올려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중소영세기업들도 지역 경제를 받쳐주는데 그 역할이 컸기 때문이다.

전북도는 도내 중소기업들과 영세기업들이 그동안 애써 일한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그러므로 이제 인센티브를 말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도내 영세 기업들이 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전북도는 도내 영세 기업들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겠다.

동부권 발전 프로젝트가 궁금하다

동부권에 대한 발전 프로젝트가 궁금하다.

전북도는 예전에 동부권과 관련하여 여러 번 선언한 게 있다. 동부권 발전핵심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한 것이 그것이다.

전북도는 말 그대로 그 성취를 위해서 힘내야겠다. 동부권에 대한 발전 관심사가 꺼졌다 살아가기를 반복하고 있는데 마땅치 않다. 이제 구체적으로 동부권 발전 프로젝트를 실행에 옮겨야 한다. 그게 없다면 동부권 주민들의 인구 유출은 가속화될 터이다.

전북도는 동부권에 대한 진정성을 보여야 한다.

지난 십수 년 간 동부권에 대한 발전 관심사를 말했지만 그게 그뿐이었다. 그러므로 이제 분위기를 구체적으로 조성해야 한다.

그동안 발전 기대감을 키운 만큼 추진력을 보여줘야 한다. 그리고 여기 특별히 언급할 것이 있다. 주민들은 무슨 사업이고 연속성을 바라보고 있다.

새로운 일을 벌이는 것도 좋지만 기존의 프로젝트를 끝까지 추진해 성과를 내주었으면 하는 것이다.

전북도는 동부권의 발전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

정부의 일처리가 이쪽의 기대와 달리 지역 발전이 희망 사형에 그칠까 염려가 된다.

전북도는 도민의 힘을 끌어 올리는 지력을 보여야 한다.

그 지력이 없다면 그동안 전북도가 수차례 말했던 자존 선언은 아무 쓸 데가 없다. 전북도는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자존을 공표하고 제뫼찾기를 선언했지만 우리 지역의 현실은 어려운 것 투성이다.

동부권에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는데 고민하는 모습을 보여야겠다.

인구 감소의 가속화를 막기 위해서라도 그래야 한다. 전북도는 2백만 도민 운운하고 있지만 그것은 셀프 자존심일 뿐이다. 현재 182만 명대 수준을 간신히 버티고 있는 게 팩트이다. 나이든 기성 세대들은 1960년대를 회고하고 있다. 그때만해도 280만 명이 훨씬 넘었다. 사정이 이러니 낙후를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전북도는 동부권 발전을 위한 프로젝트에 열과 성을 다 해야겠다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Large advertisement for Jeonju Daily newspaper. It features a stylized illustration of a sailboat on the water with a sun in the background. The text includes a headline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A platform for humans who provide courage and hope) and a sub-headline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For a better newspaper, a newspaper loved by more people, a newspaper with readers, all employees of Jeonju Daily are doing their best to produce the best newspaper in Jeonbuk province.) Below this, it lists several commitments: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For true local self-governance development, we will move away from copying the central press and deliver local news more deeply and accurately to our readers.); '당신의 어려움을 속 시원하게 풀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러갈 것이라는 약속을 드립니다.' (To solve your difficulties thoroughly, we are strengthening our alternative critical function and making a promise to build a more mature network and drive the wheels of regional development more vigorously.); and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Human-centered, Moral-centered, Local-centered). The Jeonju Daily logo is prominently displayed at the bottom right.